

호랑이, 곰 앞에서 쫓지마!

벼랑 끝 KIA, 안방서 '1승5패' 두산과 격돌



KIA 타이거즈가 벼랑 끝에서 '천적'을 만난다.

KIA는 헛터를 전면에 내세운 지난주 2승 4패의 성적을 냈다. 한화 원정 첫 경기와 삼성과의 홈경기 마지막 대결을 책임졌던 헛터는 그동안의 견고했던 피칭과는 달리 쉽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2패의 중심에 섰다. 양현종도 패를 더했다. 삼성과의 경기에서 9회까지 완투를 하면서 선발 역할을 했지만 5회까지 내준 점수가 5점이었다. 결국 양현종이 등판한 12경기의 팀 성적은 1승1무11패가 됐다.

'고졸 투기' 정동현과 돌아온 임준혁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하는 것으로 끝난 한 주. 믿을 구석이던 두 선발의 믿음직하지 못했던 피칭 속에 불펜까지 흔들리면서 패가 더해졌다. 타선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벤치도 부족한 전력을 만회할 묘수를

지크·임준혁 등 선발 맑음

김광수 등 불펜 힘에 부쳐

이범호 등 방망이에 기대

찾지 못했다.

최하위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한 경기의 여유밖에 없다. 공동 9위 kt와 한화가 1경기차 밖에서 호시탐탐 KIA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스타트를 끊어야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 선두 두산을 주중 안방에서 상대해야 하는 KIA는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LG와 대결을 벌여야 한다.

두산은 올 시즌 KIA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 중 하나다. 1승5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1승 뒤 5연패의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왼쪽 발목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두산의 안방마님이자 '호랑이 사냥꾼' 양의지가 고향에서 복귀전

프로야구 중간순위 (13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두산	42	17	1	0.712	0
2 NC	36	19	1	0.655	4.0
3 넥센	30	28	1	0.517	11.5
4 LG	27	28	1	0.491	13.0
5 삼성	28	32	0	0.467	14.5
6 롯데	27	32	0	0.458	15.0
7 SK	27	33	0	0.450	15.5
8 KIA	24	32	1	0.429	16.5
9 한화	24	34	1	0.414	17.5
9 kt	24	34	2	0.414	17.5

을 치를 준비를 끝냈다.

LG도 진땀 나는 상대. 광주는 5월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했다. 5시간 12분의 혈투를 벌였던 상대가 바로 LG다. 두 팀은 2승1무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크가 스타트를 끊는 마운드는 '선발 맑음, 불펜 흐림'이다. 임준혁·정동현의 등장으로 선발 로테이션 고민은 끝났다. 그러나 마무리로 맹활약을 했던 김광수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광수는 최근 세 경기에서 2.1이닝 6실점의 최악의 피칭을 하며 2패를 안았다. '만행' 최영필도 지난해의 같았던 모습이 아니

다. 최근 세 경기 성적은 2.2이닝 1실점. 좁은 한 차례 허용하기는 했지만 2.2이닝을 던지면서 7명의 주자를 내보냈다. 불펜의 중심을 잡아주던 두 배데라의 때서음이 떨어지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부족한 힘을 한방으로 만회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캡틴' 이범호가 있다. 이범호는 지난주 6경기에서 4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김주찬·나지완(이상 8개), 서동욱(7개), 김주형·필(이상 6개)을 따돌리고 팀내 홈런 1위에 올라 있다. 12월에는 열세를 보였던 삼성 차우찬에게도 홈런을 뽑아내면서 통산 팀 3600홈런(통산 두 번째)의 주인공도 됐다. 이범호는 이번 주 800득점(-6·통산 26번째), 900타점(-6·통산 19번째)을 겨냥한다. 13개를 남겨두고 있는 팀 1만8000타점에도 힘을 보탠다.

김주찬은 앞으로 5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통산 35번째 1400안타 기록을 세운다. 그리고 타이거즈가 놓치지 않고 있는 도루 1위 기록도 준비된다. 앞으로 두 차례 더 베이스를 홈치면 첫 팀 4200 도루가 채워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디아 곱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준우승... 메이저 3연패 불발
헛터는 생애 첫 메이저 우승... 박인비 제치고 세계랭킹 2위

캐나다 여자골프의 신예 브룩 헛터가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곱(19)의 메이저대회 3회 연속 우승을 저지했다.

헛터는 13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사할리 골프클럽(파71·6624야드)에서 열린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로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리디아 곱을 추격했다. 합계 6언더파 278타로 리디아 곱과 동타를 이룬 헛터는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52만5000달러(약 6억1500만원)다. 1997년 9월 생인 헛터는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됐다.

리디아 곱은 3개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자신보다 5개월 어린 헛터에게 달미를 잡았다. 리디아 곱은 마지막 17번홀(파3)에서는

티샷을 홀 1m에 붙여놓고도 버디를 잡지 못했고 18번홀(파4)에서도 10m 거리의 버디 퍼트가 홀을 빚겨가면서 연장전에 들어갔다. 리디아 곱이 먼저 친 두 번째 샷을 홀 4m에 붙여 갤러리의 박수를 받았지만, 헛터는 두 번째 샷을 홀 1m도 안되는 곳에 떨어뜨려 우승을 예상했다. 리디아 곱의 버디 퍼트가 홀 왼쪽을 살짝 빚겨가자 헛터는 버디로 연장전을 마무리했다.

3개 대회 연속 우승한 에리아 쉐타누칸(태국)은 5언더파 279타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이미림(26·NH투자증권), 박희영(27),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이 추격에 나섰지만 나란히 공동 4위(2언더파 282타)에 머물렀다. 양희영(27·PNS)은 7위(1언더파 283타), 최은정(26·볼빅)과 호주 교포 오수현(20)은 공동 8위(이븐파 284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인비

부상에 LPGA 마이어 클래식 불참... 세계랭킹도 하락

손가락 부상으로 고전하는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이번 주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 출전하지 않는다.

박인비는 13일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SM을 통해 "(16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개막하는) 마이어 클래식은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출전 대회가 언제 인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부상이 회복되는 상태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지난주 메이저대회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가입하며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왼손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제 스윙을 하지 못해 2라운드를 치른 뒤 컷 탈락했다. 갤럭시SM 관계자는 "박인비 선수의

부상이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무리해서 공을 치면 다시 도지는 상황"이라며 "지난주에 컷 탈락했기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이번 주 대회 결정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오는 7월 22일 개막하는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 출전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각 나라 4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서 박인비는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진로), 양희영(27·PNS)과 함께 한국대표 선수로 결정됐다. 손가락 부상 때문에 박인비가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갤럭시SM 관계자는 "이 대회는 개막 2주 전까지 출전 여부를 알려 줘야 한다"며 "박인비 선수가 부상 상태를 체크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산소탱크로 치료해 줄테니

챔피언스에 첨단 재활·트레이닝 장비 갖춰

KIA 타이거즈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챔피언스 필드에 첨단 재활·트레이닝 장비를 갖췄다. KIA가 지난해 선포한 비전 'TEAM2020'의 실행과제 중 하나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이다.

KIA는 최근 실내연습장에 일본의 유명 재활 전문기관인 닷토리 웰드링 센터의 장비가 완비된 트레이닝실을 개설, 기존의 웨이트 트레이닝실 외에 트레이닝실을 1개소 더 갖추게 됐다.

새로 마련된 트레이닝실에는 닷토리 웰드링 트레이닝 센터 장비인 스캐플라 2000, 스캐플라 1000, 클라비클 등 상체 운동 장비와 펌비스, 힙포인트, 스탠딩 힙포인트 등이 완비돼 있다. KIA는 재활·트레이닝 장비 도입을 통한 선수들의 체력 향상은 물론 부상 선수들의 효율적

재활을 기대하고 있다.

선수단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이크 에르고미터'와 '아이무브'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체력 상태와 밸런스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선수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효과적인 체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소탱크와 아쿠아 마사지, 고주파 치료기 등을 갖춘 치료실도 마련했다. 산소탱크는 고출력 산소 공급으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 및 골격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며, 아쿠아 마사지는 혈류 순환 마사지를 통해 근골격계 통증 개선·효과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주파 치료기는 근육 손상 및 조직재생을 돕고 수술 후 회복 촉진 및 기능향상 재활 치료에 탁월하다. KIA



는 닷토리 트레이닝실 및 치료실을 라커룸 주변 선수단 동선에 배치해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첨단 트레이닝 장비와 재활 장비들이 갖춰지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

고, 선수단의 부상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A가 퓨처스 구장인 함평 헬렌저스 필드에 건립 중인 재활센터는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중제 '함평 엘리체CC'서 부담없이 즐기세요

27홀 양잔디 골프장

4계절 상쾌한 라운딩

함평 엘리체CC가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퍼블릭·public)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올해 초 광주지역 증권 건설업체 서진종합건설은 함평 다이내믹스CC를 인수, 함평 엘리체 CC로 대중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전남 함평에 위치한 엘리체CC는 세계 최고 명문 골프코스 설계자 로널드 프림(Ronald Fream)이 자연의 조화를 거스르지 않고 설계한 호남지역 최고 친환경 골프장이다.

미국 출신 로널드 프림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고 있는 중국 시아먼 오리엔트 GC, 브루나이 제루동GC, 말레이시아 다마이라GC 등 전 세계 60개 국가 200여 곳이 넘는 코스를 설계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나인브릿지CC와 용인 아시안나CC 설계도 참여한 바 있다. 자연환경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27홀 전 홀은 양잔디로 식재돼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벙커와 웅장한 호수, 폭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장관은 골퍼들에



게 도전정신을 불어 넣는다.

여기에 명문 클럽하우스라는 명성에 걸맞은 호텔급 레스토랑과 이태리풍 휴식공간인 골프텔은 방문객들에게 품격 높은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광양 간 고속

도로,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경상·충청 등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도 용이하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함평 엘리체CC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최고급 부대시설로 품격과 가격경쟁력

을 동시에 갖춘 골프장이라는 호평 속에 전국 골퍼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골프장 예약 및 문의는 061-320-7700, 7777로 가능하다.

/김지윤기자 dok2000@



동성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 우승

동성중이 제21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동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끝난 동우회장기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진흥중과의 첫 경기에서 10-2, 5회 풀드승을 거둔 동성중은 총장중은 14-6, 6회 풀드로 제압했다. 2승으로 동물을 기록한 무등중과 사실상 결승전을 치른 동성중은 마지막 경기도 4-1 승리로 장식하면서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중학교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치러졌다.

◇시상내역

▲우승 : 동성중 ▲준우승 : 무등중 ▲최우수선수상 : 정해영(동성중) ▲우수투수상 : 박시원(동성중) ▲타격상 : 손수인(0.833·동성중) ▲최다투수상 : 정도용(2개·무등중) ▲최다타점상 : 류민승(5타점·총장중) ▲감독상 : 윤성필(무등중) ▲미기상 : 최인기(무등중) ▲감독상 : 강대성(무등중) ▲지도상 : 김승동(동성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